

# 한빛 4호기 격납건물서 3m 구멍 추가 발견

### 200여개 공극 중 가장 커 원전측 "정비 최선" 해명만 환경단체 "당장 폐쇄" 반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성인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공극은 지금까지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200여 개 가운데 최대 크기다. 한빛원전이 또 다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자, 환경단체는 '격납건물은 건물이 아닌 그물'이라며 긴급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점검 중 주중기배관 하부에서 가로 331

cm, 세로 38~97cm, 깊이 최대 157cm인 공극이 확인됐다. 격납건물 콘크리트 두께가 168cm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건물을 관통하고 있는 구멍이 발견된 셈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7년 11월 한빛 4호기에서 공극이 발견됨에 따라 4호기는 물론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3호기까지 확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공극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공극이 총 102곳 발견됐으며, 한빛 3호기 격납건물에서는 98곳이 발견됐다.

크기가 20cm 이상인 공극은 한빛 3호기 56곳, 한빛 4호기 20곳이었다. 한빛 3호기에서는 크기가 최대 45cm, 한빛 4호기에서는 최대 90cm의 공극도 발견됐다.

3호기는 지난 5월 점검이 마무리됐고, 4호기는 민간합동조사단과의 공동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점검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최대 크기 공극 발견으로 추가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빛원전 측은 공극발생 원인에 대해 건설 당시 콘크리트 타설 후 다짐작업이 불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한빛원전 1~6호기 모두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확인됐다. 1호기는 격납건물 철반 부식, 2호기는 격납건물 철반 부식과 공극, 3호기는 격납건물에서 너트 등 이물질 발견과 증기발생기 불량부품 사용, 4호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등이 물질 발견과 격납건물 공극, 5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합판조각 발견과 사용후핵연료 건물의 콘크리트 미타설, 6호기는 보조건

물 내벽 공극이 확인됐다.

지난 5월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1호기 시험기동 중 근무자가 제어봉 조작을 미숙하게 하며 최악의 경우 폭발까지 했을 상황도 발생해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시민단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공극 크기로 봤을 때 한빛원전 격납건물은 '건물이 아닌 그물' 수준"이라며 "지역민 안전을 위해 원전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이번 공극 발견으로 4호기에 대한 추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점검 진행사항과 정비결과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원전은 1·3·4·6호기가 정비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0km 규정속도 지켜주세요" 24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에 앞서 선생님과 함께 가방에 안전망토를 붙이고 있다. 북구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과 스쿨존 내 규정속도(시속30km이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가방 안전망토를 제작해 배부했다.

## 광주·전남 학교들 일본 교류 프로그램 일제히 중단

### 교류행사·수학여행 줄줄이 취소

경제자유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광주·전남 교육계가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2일 일정으로 예정되었던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10기 교류단 일본 방문일정을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 아마호쿠리쿠연락회 등과 함께 광주지역

고교 1·2학년생 24명을 대상으로 일제 강제동원 현장답사와 희생자 추모, 현지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도교육청도 '2019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팀 28개 중 여름방학 활동이 계획되었던 일본팀 6개의 현지 활동을 취소했다.

보성초, 동복초, 보성북내중, 진성중, 전남기술과학고 등 전남 일부 학교들도 2학기 중 예정된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추세다. 또 도교육청은 이날 일본 공무출장자 현장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각 학교 등에 발송하

기도 했다.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일본과의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심해지는 탓에 자칫 일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했다"며 "일본과 교류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외부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6 달뜨기 --:--  
해질녘 19:42 달뜨기 12:55

#### 장맛비

아침부터 비내리는 곳 있었다.

|    |      |       |     |       |       |
|----|------|-------|-----|-------|-------|
| 광주 | 비    | 25/31 | 보성  | 흐림    | 23/28 |
| 목포 | 비    | 25/30 | 순천  | 흐림    | 25/31 |
| 여수 | 흐림   | 25/28 | 영광  | 비     | 25/30 |
| 나주 | 비    | 25/31 | 진도  | 흐림    | 24/29 |
| 완도 | 구름많음 | 25/30 | 전주  | 비     | 25/30 |
| 구례 | 비    | 24/32 | 군산  | 비     | 25/29 |
| 강진 | 흐림   | 25/30 | 남원  | 비     | 24/30 |
| 해남 | 흐림   | 24/30 | 흑산도 | 차차흐려져 | 23/26 |
| 장성 | 비    | 24/30 |     |       |       |

####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1.0~1.5 | 남~남서 | 1.0~2.0 |
| 남해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남서 | 0.5~1.5 | 남~남서 |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남서 | 1.0~1.5 | 남~남서 | 1.0~1.5 |

#### ◇ 물때

| 지역 | 간조    | 만조    |
|----|-------|-------|
|    | 00:05 | 07:12 |
| 목포 | 12:40 | 19:53 |
| 여수 | 08:20 | 01:46 |
|    | 20:30 | 14:44 |

#### ◇ 주간 날씨

| 날짜 | 26(금) | 27(토) | 28(일) | 29(월) | 30(화) | 31(수) | 8/1(목) |
|----|-------|-------|-------|-------|-------|-------|--------|
| 날씨 | ☁     | ☁     | ☁     | ☀     | ☀     | ☁     | ☁      |
| 기온 | 25/31 | 24/31 | 24/33 | 25/33 | 25/34 | 25/35 | 25/35  |

## 한전공대 신설 맞춰 전남과학고 이전...IT계열고 전환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개교에 맞춰 추진하던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가칭) 설립 계획이 바뀐다. 영재학교 신설 대신 기존 과학고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전공대 개교 예정 시기인 2022년 3월에 맞춰 설립을 추진했던 에너지 과학영재학교 신설 대신,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혁신도시로 이전해 IT·에너지 특화교육을 강화해 확대·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다.

영재학교가 자칫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유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교육부가 영재학교 지정에 난색을 보였을 것

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에너지 과학영재학교를 한전공대 캠퍼스 안에 설립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 캠퍼스 인근 주변에 부지를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전공대 입지가 확정된 부영CC 일대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너지밸리와 한전공대 등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학고의 이전 후 확대·개편은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문화전당 하늘마당 오늘 '함께하는 돗자리 영화테이트'

한여름밤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진다. 광주시 동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해 25일 오후 7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함께하는 돗자리 영화테이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영작은 영화 '비긴어게인'이다. 이 영화는 스타 음반프로듀서였지만 해고된 남자과 실연한 싱어송라이터 여자가 뉴욕에서 만나 함께 노래로 만들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돗자리 영화테이트'는 야외에 설치된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